

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다해(짧은 복음)

루카 23, 1 - 49



루 카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

그 때 에 백 성 의 원 로 단, 곧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이



일 어 나 예 수 님 을 빌 라 도 앞 으 로 끌 고 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



을 고 소 하 기 시 작 하 였 다. ["우 리 는 이 자 가 우 리 민 족 을 선 동



한 다 는 사 실 을 알 아 냈 습 니 다. 황 제 에 게 세 금 을 내 지 못 하 게



막 고 자 신 을 메 시 아 곧 임 금 이 라 고 말 합 니 다."] 빌 라 도 가



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



께 서 대 답 하 셧 다. 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빌 라 도 가



수 석 사 제 들 과 군 중 에 게 말 하 였 다. ["나 는 이 사 람 에 게 서

(해설자)
아 무 죄 목 도 찾 지 못 하 겠 소."] 그 러 나 그 들 은 완 강 히 주 장

(다른사람)
하 였 다. ["이 자 는 갈 름 레 아 에 서 시 작 하 여 이 곳 에 이 르 기

까 지, 온 유 다 곳 곳 에 서 백 성 을 가 르 치 며 선 동 하

(해설자)
고 있 습 니 다."] 이 말 을 들 은 빌 라 도 는 이 사 람 이 갈 름 레

아 사 람 이 냐 고 문 더 니, 예 수 님 께 서 헤 로 데 의 관 할 에 속 한

것 을 알 고 그 분 을 헤 로 데 에 게 보 냈 다. 그 무 렵 헤 로 데 도

예 루 살 렘 에 있 었 다. 헤 로 데 는 예 수 님 을 보 고 매 우 기 빠

하 였 다. 예 수 님 의 소 문 을 들 고 오 래 전 부 터 그 분 을 보 고

싶 어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, 그 분 께 서 일 으 키 시 는 어 떤 표 징

이 라 도 보 기 를 기 대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. 그 래 서 헤 로 데 가



이 것 저 것 물 었 지 만, 예 수 님 께 서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



셨 다.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은 그 곁 에 서 서 예 수



님 을 신 랄 하 게 고 소 하 였 다. 헤 로 데 도 자 기 군 사 들 과 함 께



예 수 님 을 업 신 여 기 고 조 롱 한 다 음, 화 려 한 옷 을 입 혀 빌 라



도 에 게 돌 려 보 냈 다. 전 에 는 서 로 원 수 로 지 내 던 헤 로 데



와 빌 라 도 가 바 로 그 날 에 서 로 친 구 가 되 었 다. 빌 라 도 는



수 석 사 제 들 과 지 도 자 들 과 백 성 을 불 러 모 아 그 들 에 게

(다른사람)



말 하 였 다. ["여 러 분 은 이 사 람 이 백 성 을 선 동 한 다 고 나



에 게 끌 고 왔 는 데, 보 다 시 피 내 가 여 러 분 앞 에 서 신 문 해



보 았 지 만, 이 사 람 에 게 서 여 러 분 이 고 소 한 죄 목 을 하

나도 찾지 못하였소.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

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. 보다 시피 이 사

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.

(해설자)
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"] 수석 사제

(회중)
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. ["그 자는

(해설자)
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."]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

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.

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야

기 하였지만,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.

(회중)
["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

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. ["도대체 이 사람이

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 나는 이 사람에게서

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. 그래서

(해설자)

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"] 그러자 그들이

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

하는데,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마침내 빌라도는

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. 그리하여 그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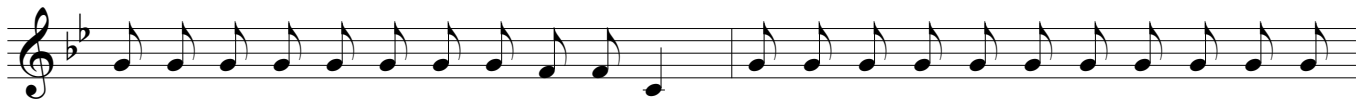
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

대로 풀어 주고,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

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, 시골에서 오고 있던



시 몬 이 라 는 어 떤 키 레 네 사 람 을 불 잡 아 십 자 가 를 지 우 고



예 수 님 을 뒤 따 르 게 하 였 다. 백 성 의 큰 무 리 도 예 수 님 을



따 라 갔 다. 그 가 운 데 에 는 예 수 님 때 문 에 가 슴 을 치 며



통 곡 하 는 여 자 들 도 있 었 다. 예 수 님 께 서 는 그 여 자 들 에 게



(그리스도)
돌 아 서 서 이 르 션 다. ["예 루 살 렘 의 딸 들 아, 나 때 문 에 올 지



말 고 너 희 와 너 희 자 녀 들 때 문 에 올 어 라. 보 라, '아 이 를



낳 지 못 하 는 여 자, 아 이 를 배 어 보 지 못 하 고 젖 을 먹 여 보



지 못 한 여 자 는 행 복 하 여 라!' 하 고 말 할 날 이 올 것 이 다.



그 때 에 사 람 들 은 '산 들 에 게 '우 리 위 로 무 너 져 내 려 라.' 하고



언 덕 들 에 게 '우 리 를 덮 어 다 오.' 할 것 이 다. 푸 른 나 무 가



이 러 한 일 을 당 하 거 든 마 른 나 무 야 어 땡 게 되 겠 느 냐?"]

(해설자)



그 들 은 다 른 두 죄 수 도 처 형 하 려 고 예 수 님 과 함 께 끌 고



갔 다. '해 골' 이 라 하 는 곳 에 이 르 러 그 들 은 예 수 님 과 함 께



두 죄 수 도 십 자 가 에 못 박 았 는 데, 하 나 는 그 분 의 오 른 쪽 에



다 른 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았 다.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

(그리스도)



셨 다. ["아 버 지, 저 들 을 용 서 해 주 십 시 오. 저 들 은 자 기

(해설자)



들 이 무 슌 일 을 하 는 지 모 립 니 다."]

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



박 은 자 들 이 제 비 를 뽑 아 예 수 님 의 겉 옷 을 나 누 어 가 졌 다.



백 성 들 은 서 서 바 라 보 고 있 었 다. 그 러 나 지 도 자 들 은 빈 정 거 렸 다.

(다른사람)



["이 자 가 다 른 이 들 을 구 원 하 였 으 니, 정 말 하 느



님 의 메 시 아, 선택 된 이 라 면 자 신 도 구 원 해 보 라 지."]



군 사 들 도 예 수 님 을 조 롱 하 였 다. 그 들 은 예 수 님 께 다 가 가



신 포 도 주 를 들 이 대 며 말 하 였 다. ["네 가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



라 면 너 자 신 이 나 구 원 해 보 아 라."]



'이 자 는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다.' 라는 죄 명 패 가 붙 어 있 었 다.



예 수 님 과 함 께 매 달 린 죄 수 하 나 도 그 분 을 모 독 하 였 다.



["당 신 은 메 시 아 가 아 니 시 오? 당 신 자 신 과 우 리 를 구 원



해 보 시 오."]



["같 이 처 형 을 받 는 주 제 에 너 는 하 느 님 이 두 렵 지 도 않 으 냐?



우 리 야 당 연 히 우 리 가 저 지 른 짓 에 합 당 한 벌 을 받 지 만,



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]

